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순절

사순절(Lent)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속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6일(수)부터 부활절 전날인 3월 22일(토)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그래야 하지만 사순절 동안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 16:24)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인 2월 6일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16일까지 실시됩니다. 월요일에는 위임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가 계속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특별새벽기도회(새벽 4:50시작)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참여하시되 가끔씩 매일 나오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

주력교구 일정표 2월 6일(수) ~ 3월 16일(주일)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2월 6일(수) 1, 7, 13, 19교구	2월 20일(수) 5, 11, 17, 23교구	3월 5일(수) 3, 9, 15, 21교구			
2월 7일(목) 2, 8, 14, 20교구	2월 21일(목) 6, 12, 18, 24교구	3월 6일(목) 4, 10, 16, 22교구			
2월 8일(금) 3, 9, 15, 21교구	2월 22일(금) 1, 7, 13, 19교구	3월 7일(금) 5, 11, 17, 23교구			
2월 9일(토) 예배위	2월 23일(토) 예배위	3월 8일(토) 예배위			
2월 10일(주) 예배위	2월 24일(주) 예배위	3월 9일(주) 예배위			
2월 11일(월) 4, 10, 16, 22교구	2월 25일(월) 2, 8, 14, 20교구	3월 10일(월) 6, 12, 18, 24교구			
2월 12일(화) 5, 11, 17, 23교구	2월 26일(화) 3, 9, 15, 21교구	3월 11일(화) 1, 7, 13, 19교구			
2월 13일(수) 6, 12, 18, 24교구	2월 27일(수) 4, 10, 16, 22교구	3월 12일(수) 2, 4, 14, 20교구			
2월 14일(목) 1, 7, 13, 19교구	2월 28일(목) 5, 11, 17, 23교구	3월 13일(목) 3, 5, 9, 15교구			
2월 15일(금) 2, 8, 14, 20교구	2월 29일(금) 6, 12, 18, 24교구	3월 14일(금) 6, 12, 16, 18교구			
2월 16일(토) 예배위	3월 1일(토) 예배위	3월 15일(토) 예배위			
2월 17일(주) 예배위	3월 2일(주) 예배위	3월 16일(주) 예배위			
2월 18일(월) 3, 9, 15, 21교구	3월 3일(월) 1, 7, 13, 19교구				
2월 19일(화) 4, 10, 16, 22교구	3월 4일(화) 2, 8, 14, 20교구				

2월 교회 일정	
6월(수)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3월 16일까지) 재의 수요일 외선부 수련회(7일까지)
13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4시~목, 역전도회) 정기교회(수요24시~목, 역전도회)
16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장년부 수련회
22일(금)	제1차 청지기훈련(금요일전망회 시)
24일(주)	제1차 학습 및 세계시(창3:1~11)
29일(금)	청년부 수련회(3월 1일까지)

오늘은 선교주일 기도와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

매년 공동의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사용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모든 성도님들께 공개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드린 헌금이 매우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는 것은 당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렘 4:4) 2007년 결산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성도님들의 선교헌금은 저조한 편입니다. 선교에 관한 지출과 수입을 대비했을 때 선교비 항목의 수입이 많이 부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며 최후의 사명입니다. (마 28:18~20)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단기선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와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 11:19~30)

안디옥교회는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것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순식간에 안디옥은 가장 부흥하는 기독교 도시로 성장했고 선교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6절)

안디옥교회의 시작 안디옥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한층 심해진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절)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마침내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안디옥교회가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23~24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안디옥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6절)

성령충만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성령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행 13:1~2)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안디옥교회는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려 할 때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행 13:2)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행 13:3) 참으로 안디옥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마 28:19) 그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행 13:4~5)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한 선생을 유지하느라 급급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업로드 못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선교사 파송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 교회는 안디옥교회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들은 선교사역에 쓸 자금이 없다는 것 보낼 만한 선교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금이 넉넉한 교회는 그것을 선교사들은 다른 일에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충헌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에 더욱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풍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영혼들을 구해내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EZRA AND HIS PEOPLE

⁽²¹⁾ Then I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of Ahava,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us, our little ones, and all our possessions. ⁽²²⁾ For I was ashamed to request from the king troops and horsemen to protect us from the enemy on the way, because we had said to the king, "The hand of our God is favorably disposed to all those who seek Him, but His power and His anger are against all those who forsake Him." ⁽²³⁾ So we fasted and sought our God concerning this matter,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Ezra 8:21~23)

After more than seventy years of captivity in Babylon, God's people were being restored to Jerusalem. During Ezra's prophetic ministry, the Persian king, Artaxerxes I, gave him permission to take "any of the people of Israel and their priests and the Levites" back home to help rebuild their Temple for spiritual revival. (Ezra 7:12~13) It was a blessing time, but God's people were not delighted. They had grown comfortable in their foreign surroundings, and moving back to a place in disarray was not looked upon favorably. As Ezra gathered his people for their journey, he noticed there were not any Levites in their midst, "Now I assembled them at the river that runs to Ahava, where we camped for three days; and when I observed the people and the priests, I did not find any Levites there." (Ezra 8:15) The whole reason for returning centered on their religion, and to not have their key religious people with them was very upsetting. Therefore, Ezra made a special call to enlist them. The Bible tells us that thirty-eight Levites and 220 servants responded to the call. (Ezra 8:18~20) When the proper assembly was gathered and ready to move, Ezra perceived their fear. People do not like to move from the known to the unknown. They do not like to travel under dangerous conditions, as was the case with Israel. Indeed, anxiety robs people of joy, peace, and health. God's people should not be apprehensive. What did Ezra do? Where should God's people turn in times of uncertainty and danger?

Ezra directed his people to seek God, "Then I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of Ahava,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us, our little ones, and all our possessions." (v. 21) Ezra asked his people to focus on God by fasting and praying. Psalm 121:1~2 says, "I will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from where shall my help com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Do you really believe that your Lord made heaven and earth? Israel's lives, children, and possessions were all in peril. Everything precious to them was on the line. Ezra knew they needed serious praying time. When you look at the Bible, the heroes of faith always sought God, especially during desperate times. David sang to God, "When You said, 'Seek My face,' my heart said to You, 'Your face, O Lord, I shall seek.'" (Ps. 27:8) Isaiah said, "At night my soul longs for You, indeed, my spirit within me seeks You diligently; for when the earth experiences Your judgments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learn righteousness." (Is. 26:9) Where do you turn in times of trouble?

Ezra made his people surrender to God, "For I was ashamed to request from the king troops and horsemen to protect us from the enemy on the way, because we had said to the king, 'The hand of our God is favorably disposed to all those who seek Him, but His

power and His anger are against all those who forsake Him.'" (v. 22) The king offered soldiers, but Ezra declared that God would take care of them. The king could help them, the soldiers could be their Savior, but in this case their testimony was at stake. Ezra told the king that Israel only needed God's power. They chose to risk everything on God. How about you? Do you trust God or humans when the situation is serious? Do you expect God to come through when you really need Him? Do you practice your faith when everything is on the line?

Ezra helped his people to trust God and do away with their fear. Psalm 46:1~3 say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should change and though the mountains slip into the heart of the sea;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Though the mountains quake at its swelling pride." Ezra required Israel to completely submit to God. They were not going to fear because they were going to trust God,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 23:4) During times of tribulation, do you exhibit such faith? Have you experienced being comforted by God when things are scary? Have you walked through any valleys?

God saved Ezra and his people, "So we fasted and sought our God concerning this matter,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v. 23) They made it to Jerusalem safely. God meets His people where they are. He hears their crying and praying, as He has promised to do.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if you ask the Father for anything in My name, He will give it to you." (Jn. 16:23) God responds to seeking hearts. Remember Elijah's challenge to the priests of Baal, where he had his altar soaked three times in water? He prayed,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 back again." (1 Kgs. 18:37) God answered! He will answer your prayers too.

My dear friend, today's Bible verses really picture our salvation. All people are in eminent danger because of their sins. Death and adversity surround us. Fears grip the heart over the future. As Christians, we have sought the Lord and found Him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Psalm 80:19 says, "O Lord God of hosts, restore us; cause Your face to shine upon us, and we will be saved." When the jailer asked Paul and Silas how he could be saved, they told him,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16:31) Do you find yourself in a place of danger? God loves you. God will come through for you. Seek the Lord Jesus and there will be real salvation today. 🙏

에스라와 그의 백성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8:21~23)



김성원 목사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선지자로 있을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와 함께 고국에 돌아가서 영적 부흥을 위한 성전건축을 돕도록 허락했습니다. (스 7:12~13)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타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왔던 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국으로의 귀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하기 위해 백성을 불러 모았을 때 에스라는 그들 가운데 레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스 8:15)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요한 목적이 영적 회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레위인들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소집하기 위해 특별전령을 보냈습니다. 이때에 38명의 레위인과 그들을 수송할 220명이 부름에 응했습니다. (스 8:18~20) 마침내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할 채비가 갖추어졌을 때 에스라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백성은 “내가 한 것을 떠나 황폐한 땅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그들 역시 위험한 여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심은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평화,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21절) 에스라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시편 121:1~2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자녀들, 소유물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간절하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언제나, 특별히 절망적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 27:8)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베풀어주시나이다”(사 26:9) 여러분은 환난의 때에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22절) 아닥사스다 왕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군사들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왕

과 군사들이 그들을 돕고 보호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그들의 신앙고백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분명히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도왔습니다. 시편 46:1~3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튀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눈앞의 문제들이 두렵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난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헤치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23절)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 16:23)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바울 선지자들을 향해 엘리야가 어떠한 도전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제단에 세 번이나 물을 부은 다음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아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왕상 18:37)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80:19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간구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냐고 물었을 때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지금 혹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참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

마가복음 강해 ②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 (2:13-17)

● 마가복음 서론(1:1)

● 세례 요한의 준비(1:1-8)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1:9-11)

● 광야의 시험(1:12-13)

●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1:14-15)

● 예수께서 아무 4명을 부르시다(1:16-20)

● 가르치는 권세를 나타내시다(1:21-28)

●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1:29-34)

● 순회하시면서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심(1:35-39)

● 예수께서 길리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신다(1:40-45)

●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2:1-12)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막 2:13)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다. 특히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막 2:14) 세관 레위는 당시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다. 직업의 특성상 레위는 동족으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아무도 그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신 뒤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약속(막 1:16-17)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나를 따르라”는 말씀뿐이었다.(마 9:9~10) 이 부르심에 레위는 순종하였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레위는 자신처럼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소외된 친구들도 초대하였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를지니라”(막 2:15)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막 3:13) 또한 예수님은 이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율법에 의하면 동족 간에 이차 거래를 금하였다.(출 22:25 ; 신 23:19) 따라서 동족들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갈취하던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가?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눅 24:9-10)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은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가 되었다.(요 4:28~30)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철저히 소외된 죄인들을 부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소외된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던 예수님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막 2:16)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 중심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전통만 있지 않은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천국도 가려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며 예교고 있지 않은가? 이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달걀 껍막과 환난이 두려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참 신자가 아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야 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찬 341장)

소외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말이 많았다.(눅 7:34) 특별히 많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막 2:6)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셨다. “건장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마 15:24)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소외된 죄인들, 회개자 필요한 죄인들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상황과 문화에 편승하지 말자.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거래하지 말자. 요나(욥 1~4장)의 민족적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배드로의 고집(행 10장)을 꺾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편견과 고집으로 꼭 한 우리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중심에 있는 ‘자아’를 버리고(갈 2:20)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1교육위원회



송두식(장로, 제1교육위원장)

제1교육위원회는 영아부로부터 중등3부까지의 영·유아·초·중 도서를 포함하여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십자가 복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데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복음 안에 서는 일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있지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는 말씀이 모든 선생님들의 교백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背는 선생님의 발자취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마 16:24)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보다는 단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시되고 영혼은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교육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

수님은 이 모든 위기를 은총의 기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였었습니다. 이때 부흥의 역사(삼상 7:7~14)가 있었듯이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더욱 힘써 주님께 무릎 꿇을 것입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중등3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보혈로 찬양드리고 성령강루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되어 천국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 모든 일은 각 부서 선생님들의 몫이 아니라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내신 모든 가정의 몫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아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일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실히 공부하여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안에 거하도록 각 가정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말씀은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과 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본에 삼고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올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1교육위원회가 되어서 연초의 생각과 계획이 연말에는 더욱 좋은 결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니라”(창 15:1)는 말씀이 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선교지에서 온 편지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예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에게 보내 주신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빨리 답장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제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나마 감사의 편지를 보내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6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31일에도 저의 어머니와 올케와 조카, 그리고 저와 다윗과 다니엘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2008년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조카 우미다, 무비나, 그리고 저와 2명의 어린이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슬림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특히 우미다와 무비나,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의 친정 언니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사호초자인데 저의 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동생 사나트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두 영혼을 사랑하시오니,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고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끝마라 자매가 시집을 갔고 지금은 임신 1주째입니다. 그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의심이 많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임을 확실하게 하소서. 그녀가 주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녀가 믿을 안에서 건강하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하소서. 아기가 얼마 뱃속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라고, 성령충만되 자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기가 되게 하소서. 그녀의 남편 루트필로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며 믿을 안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생명을 내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저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임을 믿기에 저는 계속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살전 5:25)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골노지(AK 천지인 선교사)

*서문 한국어판 선 드 Mail 보내주시면 보낼의 흔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판되는 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곳으로 2007년 4월에 파손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골노지의 형편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육신의 언약할 종에도 복을 안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감사할 뿐이다. 그녀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선교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선교를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교를 가지는 팀장님들의 말씀에 아무 생각없이 거절하였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자꾸 찌르는 것만 같았다. 이사가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니 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항상 "자기부인! 자기십자가!"를 외치면서 모든 일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였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결국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지금까지 다녀 온 4번의 선교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맞았다.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직접 전도지를 일게 하거나 말로 전하거나 또는 내가 읽어주어 영접 기도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는 내 발음이나 억양으로 인해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읽는 것이 가능한 사람에게 먼저 영접기도까지 스스로 일게 하고, 다시 내가 영접기도를 할 때라하게 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읽었는데 하지만 따라서 말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두 손을 잡고, 눈을 맞춘 뒤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영접기도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한 문장 한 문장을 함께 읽고 따라하도록 하였다. 약간의 노예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나의 손을 뿌리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고 영접기도까지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은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계속 히곡히웃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장난치기 부끄러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웃기만 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그 청년을 풀 위에 걸터앉게 하고,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아 눈을 마주보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님은 역사하셨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니 그의 눈빛이 점점 변화하도록 하였다. 약간의 영접기도를 따라하였다.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석귀수(권사, 20교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을 들고 가오리다. 큰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찬송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주 부르던 찬송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천국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실제로 이 찬양가사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저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러놓겠습니다. 오직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먼저 정말을 한 후 은 팀원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복전도를 할 때에는 방문하는 집마다 기쁨으로 맞아 주었고,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특히 어느 가정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계셨는데 말씀하실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해 드리자 온 가족이 기뻐하였고,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현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가정에서는 농사일을 멈추고 온 가족이 마당에 있는 외자를 동그랗게 놓고 앉아 복음을 들으며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는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옆에 계신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담담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찬양까지 불렀을 때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노방전도를 할 때에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하면 거의 가던 길을 멈추고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주면서 장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게 세워질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복음이 확산되고 하루 속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근덕(권사, 2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8일(월) ~ 2월 2일(토)	고등부 2팀	홍순길
1월 28일(월) ~ 2월 5일(화)	19교구 4지역	최진성
2월 1일(금) ~ 2월 9일(토)	중등2부 1팀	윤병석
2월 1일(금) ~ 2월 9일(토)	청년1부 1팀	윤해균
2월 1일(금) ~ 2월 9일(토)	청년1부 2팀	이신동
2월 1일(금) ~ 2월 9일(토)	청년2부 1팀	이동수
2월 2일(토) ~ 2월 9일(토)	할렐루아찬양대1팀	이상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4일(월) ~ 1월 23일(수)	18교구 7지역	최홍섭
1월 21일(월) ~ 1월 26일(토)	중등1부 1팀	안현원
1월 21일(월) ~ 1월 26일(토)	중등1부 2팀	박종욱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구역

많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

순종과 기도의 힘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지난해에 구역장으로 세우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맡게 주셔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찬양집회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서 목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거나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1년 동안 구역을 섬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역식구들이 제 스케줄에 맞추어 저녁에도 불평 없이 모이기에 힘쓰며 구역예배교재를 잘 예습하여 와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구역예배교재를 공부하여 나누면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받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주님과 상관없는 내 열심과 책임감 때문에 한 것 같아 주님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주님은 또 다른 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구역은 구역원들은 많지만 젊은이 분들은 직장관계로 주로 관사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만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구역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게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는 기존에 하던 대로 구역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전화로 심방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내 열심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 합니다. 또한 구역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며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김태관(용문4구역장, 17교구)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새로이 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전에 구역을 섬기던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직업이 있는 관계로 바쁜 와중에도 열심을 내어 구역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일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감당하였고 스스로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다 세상이여 좇아주 구역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힘든 시간들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병고로 긴 병의 시간이 이어졌고, 때문에 직장도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였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여건은 힘들어졌지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만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롭게 맡겨진 구역을 믿음으로 섬기는 2008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경순(상록4구역장, 3교구)

2008년 겨울수련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후 예수님이 항상 나의 삶에 개입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나를 가만히 놔 두지 않았고, 나는 처음의 그 믿음을 잃고 사탄에게 패배하여 어느새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영무새가 말하는 것처럼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점점 더 두려워지기만 하던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겨울수련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주제로 기도원에서 1박 2일간 열린 고등부수련회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내려 주신 정말로 귀한 자리였다. 수련회를 기대하면서도 내심 '일정이 짧아 혹시나 은혜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주

부도님의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겨울수련회 때여서 처음

저는 이번에도 처음으로 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이 구역을 맡게 된 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저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섬겨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구역은 어찌 보면 매우 연약합니다. 믿이 약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연로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저는 더욱 떨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구역장의 사명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인 만큼 성실히 구역을 섬기겠습니다. 말모에 기초하여 그 말모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2008년에도 우리 구역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권민아(기양1구역장, 20교구)

겸손으로 위장된 교만을 깨뜨리며

몇 해 전 한 친구가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남들에게는 사람의 하나님인데 자신에게는 징계의 하나님이라면서, 믿음생활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꼭 자기를 치신다면서 믿음생활에서 감사함보다 두려움이 점점 더 생긴다고 하였다. 그때 그 친구의 말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생각이 난다. 올 한 해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올해는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허락받았다. 직분을 받을 당시에 감사함보다는 부담이 나를 억눌렀다. 우리 구역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또한 잘하는 식구들이 많다. 이런 구역에 나이도 제일 어리고 믿음도 약하며 두려움이 있는 나로서는 큰 부담이 되었다. 나는 겸손의 습관대로 주님께 여주었다. "주님, 구역장이 되면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의 연륜도 있어 구역식구들을 영적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받는 직분이잖아요? 전, 아닌 것 아니잖아! 전, 저로 인해 구역식구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어느새 겸손으로 위장된 나의 교만을 깨우쳐 주었다. "그래, 훈련시키시는 거야. 내가 부족하거나 훈련기간이 남들보다 더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언제라도 구역장, 교사로 세워질 만큼 훈련이 되어 있지만 난 아니잖아. 내가 입으로 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열망한다고 하지만 뜻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었구나! 사랑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깨우쳐 주신 거야!" 구역장을 맡게 주심으로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경으로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려는 주의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려해 주세요. 주님께서 계획하신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최종미(기락3구역장, 6교구)

남은 당산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수련회의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님은 부흥회시간을 통하여 나의 짐과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셨다. 부흥회시간에 선생님, 선배, 후배, 동기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정경으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 뜨거운 기도시간에 세상에서 상처 입었던 나의 영혼을 주님이 위로해 주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수련회 기간 중에 주님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는 나의 문제에 대한 주님이 주신 해답임을 믿는다. 이 말씀이 고장난 나침반처럼 세상을 가리키고 있던 나를 다시 주님께 향하는 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 있다. 지금까지 항상 그라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세상 끝과 속에서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서 이제야 아닌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는 제가 되었습니다!"

최은빈(고통부)



눈물과 의미를 깨닫다!

저는 기도회나 예배 때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왜 우는 것인가?'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큰 삼겹이시라는 것을 알고 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친구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외치시는 목사님을 보고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주님께 "이 수련회에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겨울수련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현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성(중동1부)

예수님과 친해지다!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졸려서 엎드려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과 더욱 친해진 것 같다. 부흥회가 2시간 동안 진행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조별활동과 성경공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사랑된 말씀들과 알고 있지만 더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들이 많았다.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전윤선(중동2부)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 만나다!

언제나 나의 생각에 수련회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놀다 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수련회도 참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목사님이 개회예배 때에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서 나의 생각이 큰 변화가 생겼다. 나는 우리 조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기쁘고 즐거웠다. 모르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 때 짜여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던 시간들이 있을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짓기도 하고, 같이 성경공부를 하며 맛있는 밥을 먹는 모든 때가 즐거웠다.

저녁 부흥회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원하시면 모든 세계를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의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그 끔찍한 고초와 고난을 몸소 감당하시며 돌아가시는 참 사람을 느낄 수 있었다. 수련회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간혹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단합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기도 해서 그 시간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기에 이번 수련회가 정말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인혁(중동3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2	김나지	25	외선부	엘제(25)	176	송준근	4	장년2부	홍현기(24)	190	장주희	19	고동부	
163	정문수	12	장년2부	이자경(17)	177	안우희	8	대학부	김진수(13)	191	김병주	3	고동부	이슬기(12)
164	공병철	12	장년1부	공정자(9)	178	김유경	21	대학부	송준경(21)	192	정현숙	11	청년1부	이예수(20)
165	최상범	4	대학부		179	김유경	21	대학부	신수영(24)	193	박나현	20	청년1부	홍현희(20)
166	이형철	6	대학부	이민숙(24)	180	이영애	25	외선부	유승우(21)	194	오정민	4	청년1부	
167	서정민	4	장년2부	전순희(7)	181	강정희	13	장년1부	구준성(11)	195	황현우	10	대학부	우경은(8)
168	정하옥	8	청년1부	조종현(13)	182	변현우	14	고동부	이광순(14)	196	최서민	1	대학부	홍하옥(14)
169	김복덕	4	장년2부	장상진(2)	183	이시랑	1	청년1부	오정현(1)	197	김도성	18	장년1부	홍하옥(14)
170	고수현	19	중동3부	김재현(21)	184	유재진	3	장년1부	주순희(3)	198	김준익	18	청년1부	홍하옥(14)
171	김복덕	19	고동부	김재현(21)	185	이정영	2	고동부	주순희(3)	199	김지혜	17	대학부	유지현(15)
172	이성훈	25	외선부	김정현(2)	186	이정윤	2	중동1부	주순희(3)	200	최희자	2	장년2부	정지혜(2)
173	나예진	13	중동1부	김정현(13)	187	남지성	10	장년부	신승우(24)	201	이희하	23	장년2부	김지현(22)
174	신예진	2	고동부	이준석(4)	188	김지현	9	장년1부	이진규(6)					
175	김병민	3	소년부		189	김정애	4	소년부	김지현(4)					

*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원장 2030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22일),

영아·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열리는 날!

무척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눈이 쌓인 곳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흔적이 분명했지요.

엄마 품에 안겨서 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나온 총현의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어린이들의 표정이 정말 예뻐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 11:25)



아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저요! 저요!

활기찬 성경공부시간



정말 재미있어요



"시몬새와 같은 교회"

즐거운 찬양시간



말씀을 익히는 공작시간



말씀의 방패

